

세속화에 흔들거리는 태국 불교계

영 스콧맨닷컴, “현대화, 사찰과 스님 버랑으로 밀어내”

태국의 사찰들이 지역 사회의 세속화 물결에 밀려 그 전통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 대중매체인 스콧맨닷컴(Scotsman.com)은 최근 “태국의 사찰들, 특히 북동쪽에 위치한 사찰들이 지역 사회에서 전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할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현대적 삶의 방식이 태국의 사찰과 스님을 버랑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북쪽 치앙마이(Chiang Mai)에 위치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이른 새벽마다 마을 곳곳을 돌며 봉행하던 탁발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찰 주지 스님은 인근 레스토랑이나 배달 전문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대중 스님들의 아침 식사를 챙긴다.

프라 니판 마라위차요(Phra Nipan Marawichayo) 스님은 “스님 대부분 사찰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전과 비교해 사찰에 상주하고 있는 스님의 수도 줄었고,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사찰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 가치도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라위차요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체디 루앙사(Wat Chedi Luang·치앙마이 소재)에는 스님을 비롯해 단지 2명의 스님이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단기출가 중인 ‘소년 스님’들 뿐이다. 이는 옛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태국에서 사찰은 논과 야자수와 함께 가장 친밀한 풍경이었다. 스님은 항상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지혜를 주는 스승이자

갈등을 막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했고, 사찰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마을을 찾는 다른 지역 사람이 편하게 묵었던 곳이다.

그러나 스콧맨닷컴 보도에 따르면, 태국 사찰에서 재적 승려가 줄어들고, 심지어 스님으로서 권위와 역할은 퇴색한 채 행사를 주재하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스님의 삶은 아이폰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전제한 프라 파이산 비살로(Phra Paisan Visalo) 스님은 “이제 태국의

대중스님, 배달음식으로 식사챙겨 사찰 재적 승려 줄고 권위 퇴색돼
여과없는 스님 스캔들 보도가 문제



태국의 북쪽에 위치한 치앙마이(Chiang Mai) 체디루앙사(Wat Chedi Luang)의 ‘소년 스님(단기출가)’들이 연못에 등을 밝히고 있다. 태국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단기 출가 대신 태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체 교육에 참여하는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태국 스님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스님의 수를 29만여 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평생 출가자이길 서원한 스님은 7만여 명이며, 그마저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콧맨닷컴은 인류학자 윌리엄 클라우스너(William Klausner) 교수의 말을 인용, “태국 언론에서 사찰과 스님 관련 스캔들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도 태국 불교계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클라우스너 교수는 치앙마이의 북쪽 마을 반 파 치(Baan Pa Chi)에서 사찰과 지역 사회의 역할 관계를 1년째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사회의 첨단화에 맞춰 불교계도 그 방향과 보폭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태국 불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스콧맨닷컴은 태국 중정 스님의 차관보를 수행하는 중임을 맡고 있는 프라 아닐 사카야(Phra Anil Sakya) 스님의 말을 인용,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첨단화 된 것을 좋아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패스트푸드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사찰에만 있다고 강조하는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쇼핑몰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첫 불자 의원 탄생

일본계 미국인 히로노...
소수 종교, 여성 약진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첫 불자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미국 제113대 의회는 1월 3일(현지시간) 2년간의 임정으로 개원을 선선했다. 이번 제113대 의회에는 다채로운 이력과 소수 종교를 가진 의원들이 대거 약진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교 신도가 상원 의원에 이름을 올린 점이다.

주인공은 민주당 마지 히로노(일본명 히로노 게이코·廣野慶子, 사진). 그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 린다 린크 前 하와이 주지사를 25%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미 상원에 입성했다.

후쿠시마(福島) 현 출신인 히로노 의원은 8세 때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한 후 가난을 이겨내고 변호사가 된 후 하와이 주 하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어 온 그는 상원에 진출한 최초의 불교 신자이자 이민자 출신의 아시아계 여성 의원으로 기록됐다.

또한 미국 제113대 의회는 여성과 종교적으로 소수계가 약진했다. 불자인 히로노 의원과 함께 힌두교도인 톨시 가바드(민주, 하와이주) 의원이 미 하원에 입성했다. 또한 여성 의원이 상원에만 20명, 하원에만 8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100명이 넘게 됐다.

신종일 기자

티베트, 中 대화 제의

티베트 위기문제 해결 위해
중지도부에 요청, 中 묵묵부답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의 분신 증가로 고조된 티베트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새 지도부에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티베트 망명정부는 최근 릉상 상하이 총리 주재로 중국과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대화만이 티베트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림상 상하이 총리는 성명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우선이며 과정은 그 다음”이라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중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 대변인 톰텐 샤펜은 “회의에서 중국 새 지도부를 상대하는 전략적 접근 방안이 논의됐으나 아직 협상 대표는 임명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오는 3월까지 기다린 후 태스크포스 회의를 다시 열고 협상 대표단 인선과 협상 전략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010년 1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특사와의 협상을 끝으로 대화를 중단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중심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총서기의 부친 시중순(卞仲勳) 전 부총리와 의인어를 강조해 새 지도부의 티베트 정책 변화에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2>

암베드카르는 누구인가 ⑧



불가촉천민 극복한 인도 최고 지성... ‘신불교’ 운동가

인도 내에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극단적 차별이 19세기 까지 성행하던 당시 암베드카르 역시 불가촉천민으로 1891년에 태어나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떨어진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으며 산스크리트 배우는 것이 수드라계급과 불가촉천민에게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던 산스크리트 대신 페르시아어를 배워야 했다.

또한 학교에서 목이 마를 때도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그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오 염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그는 학교 급사가 와서 수도꼭지를 틀어줘야만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은 어린 암베드카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특정한 직업에만 종사해야 했던 불가촉천민들

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계기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암베드카르의 아버지도 영국군대에서 근무하게 됐다. 자식교육에 열의가 대단했던 암베드카르의 아버지는 누이의 귀금속을 저당 잡혀서라도 아들의 책을 사주곤 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는 불가촉천민에게는 매우 드문 일여서 축하모임이 열렸다. 열심히 공부하던 암베드카르를 눈여겨보고 있던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 모임에 참석해 한 주정부의 장학금을 추천해주었다. 이 장학금으로 그는 대학을 졸업했고 해외유학까지 떠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공부하던 1917년에 그는 장학금을 지급한 주정부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여 주정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인도 델리대학교 교정에 있는 암베드카르 동상

그 당시 인도에서 드문 박사학위 소지자였지만 불가촉천민이라는 신분은 그의 학력과 경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그는 사무실에서 물을 마실 수 없었으며 사무실의 사환조차 그와의 신체 접촉을 꺼려 서류를 건네야 할 때는 멀쩡이 떨어지지

신분 때문에 박사학위 무용지물 되기도
美·英 유학, 변호사·인도 초대 법무장관

던져주곤 했다.

또한 불가촉천민에게는 누구도 방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화교도(拜火敎徒)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숙을 얻었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분노한 배화교도들에게 폭행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이

런 일들에 좌절하는 그는 결국 몇 달만에 주정부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암베드카르는 그 이후 봄베이에 있는 한 상과대학의 교수로 임명됐다. 그러나 상황은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그는 교수 휴게실에 놓인 주전자의 물을 마실 수 없었고 동료교수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뜻대한 공부를 마치려 다시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에서 그는 다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서른 두 살의 나이에 암베드카르는 두 개의 박사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최고의 지식인이 되어 인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인도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불가촉천민들을 고통에서 구하려는 활동을 시작한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⑧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⑧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⑧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⑧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등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수 1개(12mm) 출삼색, 코핀개, 밴드, 이수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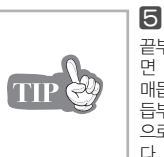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꿰습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수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जू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있는 모जू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꿰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헛꿨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जू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जू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밴드들을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밴드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जू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헛꿨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5